

푸파이터스 · 리암 갤러거, 한무대에 선다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 8월 22일 '리브 포에버 롱' 공연 개최... 한국 인디 록 대표 주자 '모노톤즈' 참가

여름 록 페스티벌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2013년 여름 시장에만 대형 록 페스티벌이 다섯개가 몰리며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다 제작년과 작년 터줏대감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과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구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양강 체제를 이어왔다. 올해 여름에는 새로운 형식의 록 축제가 추가돼 눈길을 끈다.

굵직한 내한공연을 성사시키고 있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는 오는 8월 22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리브 포에버 롱(LIVE FOREVER LONG)'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하드록을 대표하는 '푸 파이터스', 브리티시 로큰롤의 상징인 '오아시스' 출신의 리암 갤러거



미국 하드록을 대표하는 '푸 파이터스', 브리티시 로큰롤의 상징인 '오아시스' 출신의 리암 갤러거 그리고 한국 인디 록의 대표 주자인 '모노톤즈'가 한 자리에 모인다.

2년 만에 내한하는 푸 파이터스는 얼터너티브 록의 전설 '너바너'의 드러머였던 데이브 그롤이 이끈다.

1995년 동명 타이틀의 데뷔 앨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장의 앨범을 발표해 25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5년 안산 M 밸리 록 페스티벌로 처음 한국을 찾았는데, 당시 그롤이 다리 골절로 김스를 한 상태로 특수 제작한 왕좌(throne)에 올라 열정적인 연주를 선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제2의 비틀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브릿팝의 부흥기를 이끈 오아시스를 형 노엘과 함께 이끌었던 리암 갤러거는 '비디아이 해체' 이후 첫 솔로 무대로 한국을 찾

는다.

모노톤즈는 노브레인, 더 문사이너스의 기타리스트 차승우와 베베밴드, 윈더버드의 베이시스트 박현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팀이다.

수십개 팀이 나오는 대형 록페스티벌이 아닌 굵직한 팀으로만 알차게 꾸린 록 공연이라 눈길을 끈다.

CD 등 음반 시장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음원 역시 큰 수입을 내지 못하면서 록밴드들에게 월드 투어는 수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일본에 비해 한국 팝 시장은 규모가 작아 '후지 록 페스티벌', '서

머소닉' 등에 참여한 팀들이 들렸다 가는 구조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흐름에 푸 파이터스와 갤러거와 한국에서 함께 공연하는 이벤트 자체에 업계와 록 팬들은 고무되는 분위기다.

공연 타이틀은 오아시스와 푸 파이터스의 각각 대표곡 중 하나인 '리브 포에버'와 '베버롱'을 아우른 것이다.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는 "좀처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던 세계 최정상 록 뮤지션의 특급 공연에 대한 큰 기대감을 담고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두 팀 역시 함께 공연하는 것에 대해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과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 인천, 이천에서 열리는데 '리브 포에버 롱'은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엘리 버드 스탠딩 11만원, 일반 예매 13만2000원 등 굵직한 세 팀의 공연을 보는데 티켓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한국 여름 록 페스티벌 시장은 2~3개가 적당하다"며 "푸 파이터스, 갤러거 등 알짜만 출연하는 록 축제는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와이스, 5연속 히트 '시그널' 7개 차트 1위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가 5연속 히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15일 오후 6시 발매된 트와이스의 새 앨범 '시그널'의 동명 타이틀곡 '시그널'은 16일 기준 멜론, 지니, 엠넷, 네이버, 올레, 벅스, 소리



바다 등 7개 국내 음원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트와이스는 데뷔 이후 약 1년7개월 동안 데뷔곡 '우아하게'를 시작으로 '치어 업!', 'TT', '낙낙' 그리고 이번에 '시그널'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명실상부 톱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시그널'은 강렬한 808 베이스의 힙합 리듬에 리드미컬한 전자 악기들을 배치한 곡이다.

JYP 박진영 프로듀서가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

트와이스는 데뷔 후 처음으로 박진영의 곡을 타이틀 곡으로 내세워 컴백 눈길을 끌었다.

해외에서의 인기도 뜨겁다. 16일 기준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마카오, 케이맨 제도, 브루나이, 파나마 총 12개 국가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랭크됐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3위, 브라질과 멕시코 4위, 캐나다 15위, 미국 17위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북중미 등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며 트와이스의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했다.

음원과 동시에 발표된 '시그널' 뮤직비디오는 1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공개 12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600만 건을 넘어섰다. 멤버들이 양 손을 머리에 얹고 신호를 보내는 듯한 포인트 안무와 4인 하트 춤 등이 인기다.

한편 트와이스는 오는 8월 17~1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의 안코르 무대 '시그널' 안코르 트와이스랜드를 연다.

/뉴시스

로이킴, 미니 앨범 발표

1년 6개월 만에 '개화기' 로 컴백

가수 로이킴(25·김상우)이 1년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미니 앨범 '개화기'(開化期)다.

이번 앨범 대표곡은 '문득'이다. 이 노래는 이별 후 문득 떠오른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작품으로 로이킴이 작사·작곡했다. 이밖에 '이기주의' '혜'에서 그려 '근데 난 '상상해봤니' '혜' '혜' 등이 실렸다.

로이킴은 "개화기는 꽃이 활짝 피는 시기나 국가의 역사에서 황금기를 맞았을 때를 의미한다. 앨범명에 걸맞게 의도적으로도 꽃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저에게 다시 개화기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했다.

로이킴의 새 앨범에는 단정한 외모의 포크송 가수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먼저 외모부터 바뀌었다. 염색하지 않은 긴 머리가 이마를 덮었던 헤어스타일은 황금색으로 물들인 파마 머리가 됐다.

음악에도 변화가 있다. 발라드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선보인 적 없는 빠른 템포의 곡도 있다.

"포크 음악만 하는 가수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프로듀서를 찾는 데만 4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고, 다양한 음악적 변화를 시도한 앨범입니다."

로이킴은 "차트 상위권이 황금 연휴 고



속도로처럼 꼭 막혀 있는 상태이지만, 신곡이 음원 차트 10위 안에 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4월에 앨범을 내려고 했는데 작업 과정이 길어졌다. 아이유와 '역'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엔 싸이가 나왔고"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로이킴 미니앨범 '개화기'는 16일 오후 6시 공개됐다.

/뉴시스

AOA 초아, 나진산업 대표와 열애설 부인

걸그룹 'AOA' 멤버 초아(27)가 이석진 나진산업 대표와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7일 "초아에게 확인 결과 이석진 대표와는 지인일 뿐이며, 교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e스포츠업체의 유명 인사다. 나진산업은 용인에 나진 전자월드를 세운 기업으로 이 대표는 2011년 대표로 취임했다.

앞서 초아가 힘든 시기에 이 대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초아는 최근 잡적살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3월 AOA 콘서트 이후 공식 일정에서 빠진 이후 이 같이 설이 불거졌다.

초아는 전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길게 갖게 된 휴식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놀랐고, 보이지 않는 데도 떠올려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며 루머를 부인한 바 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